

집단 미술치료가 피학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과 미술치료학의 융복합적관점

이숙민*, 송 순**

원광대학교 보건보완대학원^{*},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An effect of the group art-therapy on abused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self image -Children's Art Therapy Department of complex convergence perspective

Lee Sug-Min*, Song Soon**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Complementar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Departmen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요 약 본 연구는 피학대 아동을 위한 중재방법으로 미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미술치료전문가와 아동학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미술활동이 아동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00시 00그룹 홈 초등학생 4명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주 1회 60분간 48회기 적용하였다. 미술치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매 회기마다 치료적 목표와 함께 대상자들의 정서적 반응과 태도 행동들을 기록하였고 행동변화에 대한 타당도검증을 위해 CDI, TAIC, SAIC, 자아상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척도는 사전측정(2013년 9월)과 사후측정(2014년8월)하였다. 척도의 신뢰도검사를 위해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받은 아동들은 작품에서 그들의 정서상태를 표현했고 행동이 변화하였고 친구관계가 향상되었다. 둘째, CDI, STAIC(TAIC, SAIC)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사후검사결과가 사전 검사결과보다 낮았다. 셋째, 자아상 검사결과 사후검사결과가 사전검사결과보다 높았다. 즉 아동들은 충동적 행동이 감소했고 가족, 친구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탁양육자는 아동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양육의 어려움이 감소하였다.

주제어 : 집단 미술치료, 피학대 아동, 아동의 우울, 불안, 자기상

Abstract I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group art-therapy for abused children with depressed, anxiety, negative self image. The subjects were 4 children at OOcity OGroup home. They lived at group home for 4years 5months with any treatment. Group art therapy had been conducted once a week from Sept. 2013 through Aug. 2014. There were 48sessions and each session lasted 60 minute. To verify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art activity, works & contents), researchers recorded the subjects' emotional reactions, attitudes, behaviors with the therapeutic purpose in each session and measured CDI, STAIC(TAIC, SAIC), Self-IQYA Korean version Inventory for validity. Pre test(Aug. 2013) & post-test(Aug. 2014) were executed. To do a sum of test reliability, the SPSS 21.0 program is used. The results were: firstly, abused children expressed their emotional state in the works, they changed behaviors and improved relations with friends. Secondly, the score of depression & anxiety in the post test was lower than in pre test. Thirdly, the score of self-image changed positively. Exactly, they reduced impulsive act and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hips. Fosterer understood well the children so she would reduce difficulty.

Key Words : group art-therapy, abused childre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self-image.

* This study investigated by the 2013 Wonkwang University research fund.

Received 27 October 2015, Revised 28 November 2015

Accepted 20 Dec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 Song, Soon

(Wonkwang university Departmen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Email : ss6653@wk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미술치료전문가와 아동학전공자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아동기는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로서 양육자와 관계는 아동의 긍정적 자아와 자기상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심리·행동과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동기에 형성되는 긍정적 자아와 대인관계 양식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부모의 방임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정서적 학대로 모욕적이고, 거부적 반응을 경험한 피학대 아동은 무기력하고, 부정적 자기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타인으로부터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9].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은 우울, 불안, 공격성과 관련되며[4] 부모의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습능력이 낮고[15] 집중력 장애와 인지손상 등으로 학업성취가 어렵고 공격성, 비행행동문제, 학습부진 등으로 더 소외되고 위축되는 생활을 하게 되어[10] 또래 및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일반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울과 공격성을 감추고 있어 잠재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28].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한다[16]. 특히 신체적 학대 경험은 자기조절 능력인 의도적 통제 발달을 방해하고 아동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체성 장애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학대 경험에 의해 파괴된 정서조절 능력이 이후의 불안 및 우울, PTSD와 같은 심리적 부작용 증상을 매개하기도 한다[8].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내적 통제감이 덜 발달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부모 외의 대체 자원이 부족하여 학대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신체적 학대와 유기, 방임과 같은 잘못된 양육태도는 유아동에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며 왜곡된 자기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방임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서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20] 아동의 전 발달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심리적으로 손상된 아동의 정서적 회복과 긍정적 자기상을 갖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활동은 아동의 정서 표현을 촉진하고 치료사의 적극적 지지는 아동의 손상된 자아회복과 긍정적 자기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미술활동의 구체화된 작업은 아동의 경험을 이미지나 작품의 형태로 표현하고 아동은 작품에 표현된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객관화하여 외상적 경험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외상경험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만을 사용하는 심리치료보다 아동의 손상된 자아회복과 자기상 회복에 적합하다고 본다(Collie, 2006)[30].

집단 미술치료는 집단치료와 미술치료가 결합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미술작업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18]. ‘집단’은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집단이므로 유사한 욕구를 가진 구성원들이 집단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지지를 제공하고 역할 모델링을 제시할 수 있다. 자기표현력이 결여된 내담자에게 집단에서 경험하는 역할 모델은 잠재력을 발휘하여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주며, 의사소통과 표현의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여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2]. 미술활동은 비언어적 표현이 중심이 되며 아동미술치료에서 아동은 공격성, 불안, 억제된 감정 등을 미술활동을 통하여 소망이나 판타지 형태로 분출하여 자신을 인식하며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극복하여 승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19].

실증적 연구들에서 집단 미술치료는 시설 모자가정 아동의 자기개념을 향상시키고 희망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23]. 뿐만 아니라 유아의 다중지능을 향상시키고[6]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활동을 통해 억압된 감정표출과 자기표현력 향상으로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12].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은 행동이나 언어사용, 감정 표출에 긍정적 변화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14]. 집단 미술치료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정서적 불안정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서조절 능력을 증진하

였다[22]. 주제제시 집단 미술치료는 경도지적장애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개인적 적응행동을 향상시켜 재활치료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24].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학대와 방임으로 분류되어 처치 없이 그룹 홈에 거주하고 있던 피학대 아동에게 1년 동안 집단 미술치료 과정을 제공하면서 발견된 피학대 아동 개개인의 심리·정서·행동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기술하고자한다. 미술치료전문가가 미술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아동학자는 참여관찰하면서 상담 사례를 기록하고 2인 이상의 전문가 평가와 측정도구의 사전-사후 평가비교를 통하여 내담자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효과검증과 더불어 아동에게 개입을 할 때 단계적으로 고려해야할 구체적 내용 및 미술활동의 활용방법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집단미술치료가 피학대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집단미술치료가 피학대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집단미술치료가 피학대 아동의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

2.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부모의 신체적 학대, 방임으로 판정되어 그룹 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4명이다. 대상 아동들의 연령, 성별, 입소사유 및 시기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A, B, C'는 남매이고 D는 아니다. A, B, C'는 현 그룹 홈 거주 4년 5개월, D는 1년 5개월이며 이들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개입 없이 그룹 홈 보호자의 양육 하에 있었고 위탁양육자는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사례는 위탁양육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게 된 사례이다. A는 상담이 진행되는 도중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Table 1> Subjects(Cause & time of entrance Group-home and then emotion, behavior, attitude)

Subjects	Cause & time of entrance Group-home	Emotion, Behavior, Attitude
A 13year 7month (Girl)	Mother leaved home when she was 3year-old. She was cared by grandmother. The farther abused her. So child protection agency separated from family. She entered Group Home on May 2010. She lived for 4 years 5 months at group home with sister B and brother C'.	Negative signs of physical violence, Emotional: anxiety, passive, keep silent. Behavior: low activity, and slow Attitude: hesitation. Physique: undersized compared with peers.
B 12year 7month (Girl)	Mother leaved home when she was 2year-old. She was cared by grandmother. The farther abused her. So child protection agency separated from family. She entered group home on May, 2010. She lived for 4 years 5 months at group home with sister A and C'.	Negative signs of physical violence, the whole body is covered with scars. Emotional: a very unstable state. Behaviors: verbal, really quick, bite her nails and then her sister noticed a lot of fingers swollen red spring. Attitude: Negative Physique: undersized compared with peers
C' 11year 1month (Boy)	Mother leaved home when he was 2year-old. He was cared by grandmother. The farther abused him. So child protection agency separated from family. He entered group home on May, 2010. He lived 4 years 5 months at group home with sister A and B.	Negative signs of physical violence, the whole body is covered with scars. Emotional: a very unstable state. Behaviors: He made complaints to work art therapy. Attitude: hostility. Physique: undersized compared with peers.
D 8year 6month (Girl)	No records of the Mom. Fostered day care center. The father give up her. So child protection agency separated from family. She entered group home on May, 2013. She lived 1 year 5 months at group home with A,B,C'. No brothers and sisters.	Neglect. Try to look pretty, obedient to adults. Emotional: sentimental and emotional bias, be angry. Behavior: tell a lie and fantastics. Attitude: behave nicely. Physique: Average

2.2 자료

2.2.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참여관찰하며 기록한 회기별 기록자료와 둘째는 검사 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비교분석이다. 참여 관찰자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의식과 주의력의 수준을 높이고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광각렌즈를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당연시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성하고 광각렌즈를 가지고 심중에 그림을 그리며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자기성찰을 하며 보고 느낀 것을 기록 관리하므로 일상적 참여자와는 다르다[7]. 본 연구자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반응과 변화를 참여관찰자로서 치료 과정을 회기마다 상세히 회기별 사례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상담과정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주 1회 60분간 48회기 적용하였다. 초기 면담 과정에서 2013년 8월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취지와 응답방식을 설명하였다. 47회기 이후 종결을 알리고 2014년 8월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에 대한 응답은 아동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결과활용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우울

(CDI :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Kovacs(1981)[11]가 개발한 소아우울척도를 Jo & Lee(1990)[22]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검사시점으로부터 지난 2주간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중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골라 묘사하는 자기보고식 우울 척도이다. CDI 는 7~17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하위척도는 부정적 기분과 신체증상, 대인 관계문제, 부정적 자기상이 포함된다. 우울 정도에 따라 0~2점으로 채점하고 총0~54점 범위에 점수가 분포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98이다.

〈Table 2〉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and State - Trait Anxiety Inventory Analysis by type (TAIC, SAIC)

Sub area	Item Number	Items	Reliability
Negative mood&Physical symptoms	1~7	7	
Interpersonal Problems	8~14	7	
Negative self-image	15~27	13	
Entirety	27	27	.898

2.3.2 불안

(STAI C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소아 상태-특성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Table 3>. 이 도구는 Spielberger(1972)[28]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TAIC)을 Jo & Choi(1989)[11]이 번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자기보고식 평정척도로, 아동의 ‘상태불안’에 대해 20문항, ‘특성불안’에 대해 2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상태불안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특성불안은 아동의 일반적인 성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해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의 3점 척도로 평정하며, 각 1점~3점으로 채점하여 총20점~60점의 범위에 점수가 분포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상태불안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54이고, 특성불안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2이다.

〈Table 3〉 STAIC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ubarea	Item Number	Items	Reliability
SAIC	1~20	20	.954
TAIC,	1~20	20	.912

2.3.3 자기상(SIQYA : Self - 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Peterson(1984)[26]이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상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는 SIQY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의

하위영역인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가족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상태, 낮은 충동통제, 낮은 정신병리, 좋은 가족관계, 좋은 친구관계, 좋은 대처능력이다.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 값은 <Table 4>와 같다. 전체 항목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85이다.

<Table 4> SIQYA : Self - 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ub area	Items	Item Number	Reliability
Emotional state	11	5,12,16,19,20,21,26,33,34,41,64	.939
Impulse control	8	2,22,28,35,48,61,65,67	.790
Psychopathology	11	1,8,11,15,18,30,40,43,46,54,56	.919
Family Relationships	17	3,7,10,13,14,23,27,29,32,36,42,44,47,50,53,57,59	.871
Friendship	10	4,6,24,25,31,37,39,45,58,62	.992
Coping skills	10	9,17,38,49,51,52,55,60,63,66	.867
Entirety	67		.985

2.4 자료처리 방법

집단 미술치료가 피학대 아동의 심리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기별 사례기록지를 활용하였고 내담자의 작품활동시 행동과 작품 및 작품 내용등을 분석하였다. 회기별 사례보고서 활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 2인의 감수를 받았다. 작품분석의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울, 불안(상태-특성 불안), 자기상 척도 검사를 하였고 초기면담과정에서 얻은 사전검사결과와 종결단계에서 얻은 사후검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사전-사후 검사결과는 응답자의 문항에 대한 반응결과의 총합을 활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hronbach's α 값을 구했다. 프로그램은 SPSS 21.0 ver.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집단 미술치료가 피학대 아동의 심리-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상아동들에게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초기부터 종결기까지 아동들의 심리·정서 행동의 변화와 작품 내용들에 나타난 기록결과들을 정리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내담 아동의 반응을 정서,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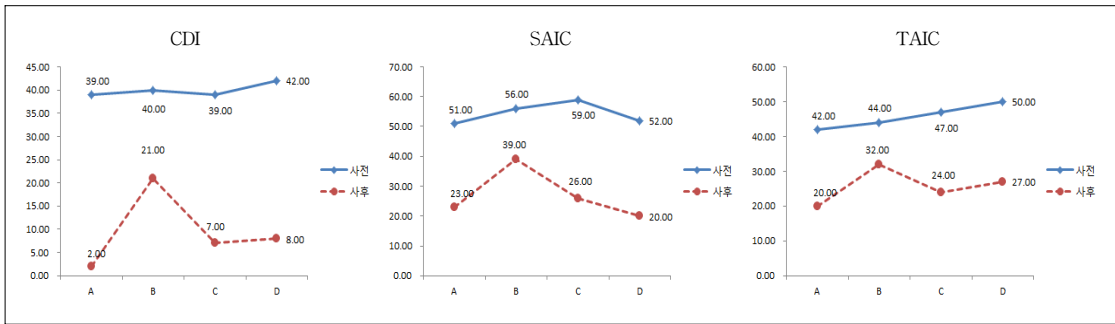
도, 행동, 자기상 등을 작품제작 과정 행동관찰과 작품해석, 언어적 반응과 보호자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회기마다 아동에게 발견되는 특성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발견되어진 아동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하여 차기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지지적 집단 미술치료를 적용하였다. 회기동안 내담자들은 마음을 열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 받았고 중기 이후의 신뢰감이 형성된 단계에서부터 피학대 아동의 주호소문제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거나, 손톱을 물어뜯고 집중도가 낮고 작품완성 속도가 느리고, 위축된 목소리, 자신 없는 행동, 불안정하고 우울한 감정표현, 부정적 자기상, 지나친 양보와 배려 반응들을 보였다. 중기부터는 불안, 무기력, 부정적 자기상, 인정받기 위한 조숙한 행동들이 과장되게 표현되고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 위축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7개월). 9개월 이후부터 상담자는 반복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아동들은 친구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되었다. 상담자의 구체적 칭찬 격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손톱 깨물기와 같은 자학적 행동이 사라졌다. 남아인 C'는 부모 부재로 가족을 책임져야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불안과 우울 반응이 심했는데 꿈 작업을 통해 선생님이 되겠다는 미래 꿈을 갖게 되었다. D는 지나친 양보와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순응적 태도 대신에 자기주장과 자기 욕구와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재인식으로 외로움이 감소되었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내담자들은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위탁양육자는 내담자들의 욕구와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어 양육의 어려움이 감소하였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3.2 집단 미술치료가 피학대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각 아동의 우울/불안의 사전 사후 변화추이를 [Fig. 1]에 참고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Fig. 1]에서 대상 아동 A, B, C', D의 우울과 불안의 사전검사 결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사후 결과에서는 우울과 불안에 대해 4명 아동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감소의 정도에서는 뚜렷한 개인차를 볼 수 있었다. 특히 B아동의 감소 정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Table 5> The process for abused children's behavior by the group art-therapy

Subjects	Beginning(session1~8)	Middle(session9~36)	Ending(session37~48)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wed a negative self-image to be the most stupid one among siblings with reading face in the conversation · Looked so timid hesitating when asked · Slow in work activity and expressed one's own self in work of art to have so much sadness · Showed depression as expressing very small self-image in forming work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ving self-confidence due to detailed compliment and encouragement of counsellor that slow a little in art activity but high in completeness · Disappeared expression of sadness in conversation through art work and began to be found out self-image of happiness · Began to increase in anxiety, depression and negative self-image in the late of middle stage · Told that school life had been exciting because of new fri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need to ask repetitive questions from counsellor · Active attitude to be increased in self-expression · Told that school life was very excited with a lot of new friends · Had a detailed dream to be a cook and to have a nice restaurant · Expressed actively about one's own feelings · With these, anticipated to be formed positive self-image and to increase in self-efficacy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self-confidence about self-image as expressing one's own self in work of art and then erasing it · Showed uneasiness with biting one's own nails and looking askance at others · Low in taking a seat and concentrativeness, and high frequency of shift · Low completeness compared to speed of work of art · Showed a sense of fear saying 'I'm not sure' or 'I don't kn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the early of middle stage, searched one's own image that is uneasy and lethargic in emotion activity · Expressed to have depressed feeling when looking at this one's own image · Looked higher depression quotient than colleagues, but anticipated that depression was sublimated through work activity · Since the middle of this stage, negative feelings were eliminated a little, so that found positive word in language used in one's own life and then expressed surp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wed activeness to detailed compliment and encouragement of counsellor and disappeared self-disparaging behavior pattern for one's own nails · Increased in response to counsellor's linguistic and active acceptance and support of group · Showed reinforced inner motivation in behavior and changed in positive thought · However, showed honest expression of emotion that there was hard times because depressed sometimes and came out impulsive behavior unconsciously · With these, this child must be requested continuous psychological emotion support and prognosis of counsel is anticipated positive as showed the stage of introspection about inner side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work activity, when not going well with one's own intention or when being any negative review of other children in group about one's own work, showed violent behavior to throw something away and shout in a loud voice · Because showed being intimidated, not having self-confidence and taking a negative attitude when depressed, so that there is a little difficulty in forming rapport with counsellor · Often expressed unstable emotion and depression in work of art and showed negative self-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gan to disappear being intimidated in the conversation with the work of art and showed active self-expression · Told that could dedicate a letter to portrait of one's own father with program <Writing A Letter>, and also cheered counsellor up due to rising dynamic of group with the conversation which counsellor could live bravely, although counsellor had lost parents · From that time, trusted counsellor and expressed actively one's own mind · With group dynamic, often showed behavior to find one's own negative psychological status and try to modify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 dream work, had a dream to be a teacher like the counsellor to have a self-confidence and being found positive self-image to achieve one's own dream to become a great person · Disappeared rebellious behavior showed at the first time · Had been depressed and felt uneasy because of responsibility for family with absence of parents, however told that liked to become familiar with sisters through art activity and the conversation with counsellor · Had self-confidence that 'I can do everything whenever I decide' and a dream and also showed motivation that would be able to achieve it forward the goal one by one · Rarely showed behavior being upset or angry but showed to try to control emotion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ing tools and talking in the beginning of art work, showed excessive concession and consideration to mix other three siblings · Showed to modify work of art many times to raise degree of completion · Showed excessive agreement with other group member's opinion without expressing one's own desire obedient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the early of middle stage, still showed not to socialize with others and to behavior like marginal person · Appeared behavior gradually to approach others first · Began to Disappear slowly the behavior to whine when mixed with other children at acting like adult in order to get on counsellor's stuff and recognition · Showed increase in confidence through drawn friends and surrounding people in the picture, but one's ownself in the early work of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the art activity, found wider thought than excessive concession and consideration before and the ability of emotion control to express desire, emotion and opinion · Found positive self-image to become an art teacher with saying person who works hard can be a great person · Appeared behavior to assert one's own desire from obedient behavior, which was not to have before by looking a life from another person's perspective · Had the encourage to approach siblings first · It is considered that depression and uneasiness had been eliminated because of expression to have no more loneliness or dreariness throughout the program <Family Swing> which could help recognize again about family



[Fig. 1] Korean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 (CDI and the State - Trait Anxiety Inventory (SAIC, TAIC) of the type of pre-post change in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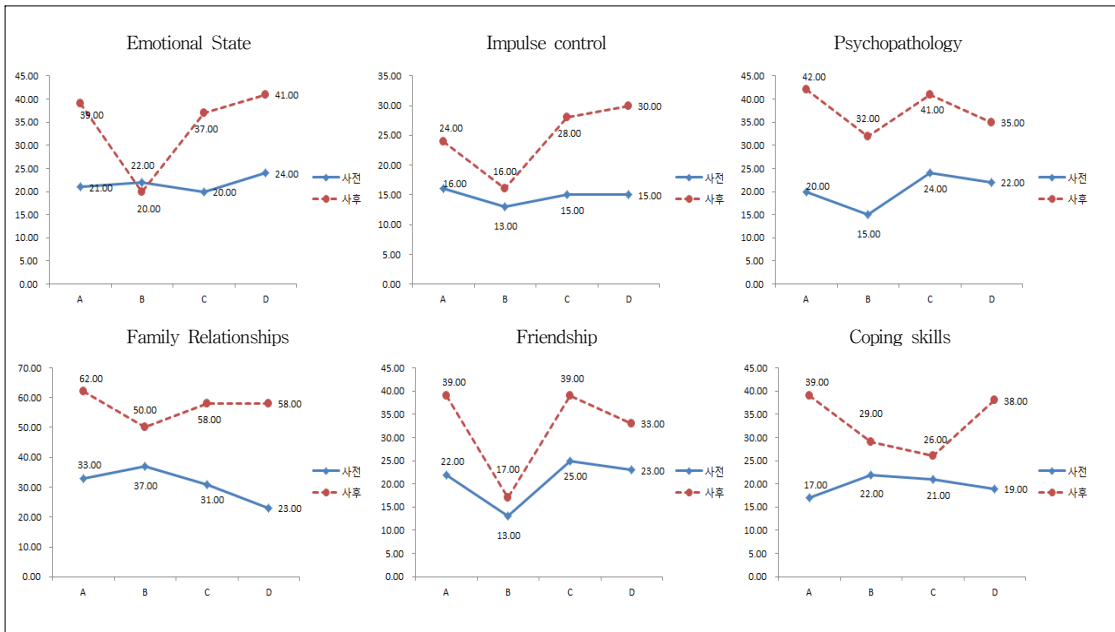
3.3 집단 미술치료가 피학대 아동의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각 아동의 자기상의 하위 영역별 사전 사후검사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Fig. 2]에서 대상 아동 A, B, C, D의 자기상의 하위항목별 사전검사 결과는 비슷한 수준에서 자기상이 낮고 사후검사 결과가 향상되고 있지만 예서는 대상 아동 4명은 자기상의 하위항목별 변화내용에서 뚜렷한 개인차를 보인다. 특히 B의 변화의 정도는 A, C, D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의 부정적 정서는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은 주목할만하다. B의 태도는 처음부터 매

우 부정적이었고 비우호적이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와 방임으로 분류되어 처치 없이 그룹 홈에 거주하고 있던 피학대 아동들에게 1년 동안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미술의 치료적 창작활동으로 피학대아동이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를 지각하며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Fig. 2] Type of self-image pre-post-trends

면, 내면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미술을 매개로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억압되고 왜곡된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언어적 표현을 돕고 상담자의 지지적 치료를 제공받아 피학대아동의 잠재적 긴장이나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긍정적 자아상을 증진하도록 돕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아동들에게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초기부터 종결기까지 아동들의 심리·정서 행동의 변화 과정을 참여관찰 하였고 변화 내용을 폭넓게 기록하였다. 미술활동은 매회기마다 아동에게 발견되는 특성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발견되어진 아동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하여 차기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지지적 집단 미술치료를 적용하였다. 대상아동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분리 조치 된 후 그룹 홈에서 4년 5개월(A, B, C'), 1년 5개월(D) 거주하는 동안 어떤 심리치료적 개입 없이 위탁 양육자의 보호 하에 있었다. 위탁 양육자는 아동들의 부정적이고 소극적 태도와 자기표현 부족으로 욕구와 반응을 인지하기 어려워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동들은 개입 초기에 집중도가 낮고 작품완성 속도가 느리고 위축된 목소리, 자신 없는 행동, 불안정하고 우울한 감정표현, 지나친 양보와 배려 반응들을 보였다(7개월).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고 자기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 중기부터는 집단의 지지와 역동으로 불안, 무기력, 부정적 자기상, 인정받기 위한 조속한 행동들이 과장되게 표현되고 내담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 위축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9개월). 이후부터 상담자는 반복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고, 아동들은 친구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되었다. 구성원들의 상호 지지와 상담자의 구체적 칭찬 격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손톱 깨물기와 같은 자학적 행동이 사라졌다. 남아인 C'는 부모 부재로 가족을 책임져야한다는 부담으로 불안과 우울 반응이 심했는데 꿈 작업을 통해 선생님이 되겠다는 미래 꿈을 갖게 되었다. D는 지나친 양보와 배려 순종적 태도에서 자기주장과 자기 욕구와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재인식으로 외로움이 감소되었다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 피학대 아동들은 1년 동안 자연스러운 성장효과도 있었으리라 부정하지 않으나 피학대 아동의 주 호소문제에 초점을 맞춰 제공된 프로그램과 전문상담

자와의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안정감 있는 정서상태 긍정적 자기상으로 변화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작업이 진행해가면서 그룹홈 보호자와 관계도 개선되었고 더 많은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집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참여자 상호간에 상호지지를 도우며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8]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아동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학교교육의 기회가 부족할 경우 지지적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27]. 그룹홈 위탁 양육자의 보호하에서 양육자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아동들의 심리정서는 매우 위축되고 경계심을 갖고 자기 방어적이었던 태도들이 집단미술치료를 제공하는 동안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집단 내 관계를 재인식하면서 집단 간에 역동이 일어나면서 그룹홈 양육자는 아동들의 속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그룹 홈 보호자는 아동보호 차원에서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유지는 가능케 하였지만 피학대아동의 심리정서인 폭력 및 방임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불안과 상실감을 표현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다. 각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던 정서들을 표현하면서 균형잡힌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며 내적 통제감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기의 중심에서 타인의 입장이 보이며 관계를 발전시키고 견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 것이다. 특히 집단 미술치료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서 의존할 수 있고 서로 관련되는 관계들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 것은 개인 미술치료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이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참여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피학대 아동의 심리·정서적 행동변화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피학대아동의 우울과 불안의 점수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참여관찰을 통한 주관적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그 결과가 유사하게 일치함을 볼 때 통제집단이 없어도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타당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과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켰다[29]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학대 경험에 의해 파괴된 정서조절 능력이 이후의 불안 및 우울, 복합적인 외상장애와 같은 심리적 부작용 증상을 매개한다[8]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셋째, 자기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감각적 정서적 정신병리가 감소하고 충동통제와 대처능력이 증가하면서 가족, 친구 등 대인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 모자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희망감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Kim(2009)[13]의 연구결과와 집단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활동을 통해 억압된 감정표출과 자기표현력 향상으로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Kang & Shin (2011)[12]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부정적 정서의 감소와 긍정적인 자기상은 아동의 적극적인 감정 인식과 표현으로 자기조절이 가능하고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안전하게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되었고 상담자의 적극적 지지를 통해 구체적인 꿈이 생기고 그룹 홈 보호자의 양육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집단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의 대상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기 시작한 연령이 각기 다르다. 그룹 홈에 분리되기 직전의 환경과 경험이 다르다. A, B, C'는 형제자매로서 모 가출 후 조모 양육하고 그 과정에서 부의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D는 1살부터 모 행방이 불분명하고 부 양육하에서 24시간 어린이 집을 전전하다가 7세 때 부의 양육포기로 그룹 홈에 입소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D는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감정조절이 안 되고 짜증을 내거나 허언 망상과 같은 정신병리적 반응들이 많았었다는 점이다. 모와 분리된 시기가 나이가 어릴수록 상처에 대한 강도도 크며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아동은 12개월 차이의 언니가 있고 생후 17개월에 동생이 태어났다. 태도에서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집단미술 치료 결과 우울, 불안의 감소 정도가 가장 낮고 자기상의 변화 폭도 크지 않았다. 불안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미술 활동 중에도 집중력이 낮고 매우 산만하고 부적응적 태도와 몰입의 시간이 짧아 우울감이 감소하는데 다소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미술치료는 아동의 우울, 불안과 부정적 자기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감소하고 자기표현이 증가하면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인의 입장과 정서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탁 양육자의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피학대 아동을 기존의 환경에서 분리 배치시키는 것은 아동보호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분리 배치는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하는 결과들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1년 간의 집단미술 치료 과정을 통해 다소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자기상을 회복했다하여도 이후에 나타나는 부적응적 행동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부모와 분리되거나 학대 유형에 따른 손상된 자아가 다른 만큼의 위탁 양육자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A, B, C'와 D 각 내담자의 차이를 증명할 만큼 분리이전의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했고 대상아동 모두에 대해 애착 검사 등 관계를 측정하는 작업이 부족하였고 분리되기 이전의 부모 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안정 애착 정도와 초기 대상관계 이해를 통한 자기-대상에 대한 표상의 건강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대인관계의 건강한 유지 발전을 위해 유아기 초기에 대상항상성과 애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감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상담사와의 지지적 관계 경험이 그룹 홈 보호자와도 잘 유지되고 이러한 경험이 쌓여 친구 등 사회적 관계로 확산되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조집단으로서 통제집단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조집단이 존재하는 실험설계에서의 양적 통계 결과에서 볼 수 없는 참여관찰자의 높은 수준의 의식과 주의력을 갖고 광각렌즈와 같은 시각으로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접근하였다. 다른 사람이 당연시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성하고 광각렌즈를 통해서 심중에 그림을 분명히 그리며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 관리(James, 1980/Shin, 2006)[7]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연구자의 폭넓은 관찰의 결과와 측정도구 결과를 비교해 내적 타당도

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by the 2013 Wonkwang University research fund.

REFERENCES

- [1] An, H. S.. An effect of parental abuse experience on self-esteem amo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185-203. 2014.
- [2] Choi, O. S. & Lee, K. M. & Kim, K. S. & Choi, S. N. & Lee, M. O 'et al.. *Art Therapy*. Hakjisa. 2006.
- [3] Choi, Y. H., Cha, Y. H. & Kim, S. R. Effect of the art group therapy program to improve the multiple intelligences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3), 1035-1050. 2011.
- [4] Harkness, k. & Lumley, M..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 Abela & B. Hankin(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466-48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8.
- [5] Hong, G. Ui. Research status and sequelae of child abus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Korea*. 2000.
- [6] Hong, U. J.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abuse of a child by the child's present self-image, relationships and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1997.
- [7] James P. Spradley. Shin, J. Y. *Participant Observation*. Seoul: Sigmappress. Korea. 1980. 2006.
- [8] Jang, H. S. The mediating effect of effortful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buse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8(2), 19-31. 2014.
- [9] Jeong, I. J. & Park, H. S & Ku, I. H. Figure Characteristics of the Draw-A-Story test for depression in the child care facility. *Korea Journal of Art Therapy Research*, 9 (1), 63-86. 2006.
- [10] Jo, O. J. *The emotional abuse, neglect and self-control ability of the child's mother effects on depression in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Inha University, Korea. 2004.
- [11] Kang, J. S. *Effects of a Group Snoezelen Therapy on Anxiety, Depression, and Brain Wave indexes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uthseoul University Korea. 2011.
- [12] Kang, M. H. & Shin, G. H.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of children in community centers.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9(2), 85-111. 2011.
- [13] Kim, G. H. Effect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Sciences*. 24(2), 27-46. *Child Education*, 20(1), 19-32. 2009.
- [14] Kim, J. H. & Chung, D. W.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in low-income and single-parent famil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5), 967-981. 2011.
- [15] Kim, M. S. & Park, M. 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hild abuse to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29-40. 2004.
- [16] Kim, S. J. & Chung, I. J. A longitudinal study of persistent and recency effect of child maltreatment on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Korea Journal of child welfare studies*, 43, 1-28. 2013.
- [17] Kovacs, M.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chapsychiatrica*. 1981.
- [18] Korea Art Therapy Association . *Theory and practice of art therapy*. Daegu : Donga culture publishing company. 1997.
- [19] Kramer, E. *Art as therapy with children*(2nd.). Chicago: Maganolia Street Publishers. 1993.
- [20] Kwon, J. E. & Lee, E, J & Nho, C. R.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2, 29-54. 2013.
- [21] Lee, C. J. & O. J 'et al'. Social competence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the child status, *Human Development Studies*, 15 (2), 7-152. 1991.

- [22] Lee, E. A. & Lee, S. Y.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emotion regulation ability for the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y: based on person-centered art therap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25-49. 2012.
- [23] Lee, E. J.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self-conception and optimism of children from institutionalized single mother family. *Korea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7(3), 269-296. 2011.
- [24] Lee, S. M. . *The effect of subject presented group art therapy on the social and personal adaptive behavior for high school studen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Wonkwang University, Korea. 2011.
- [25] Park, Y. J. & Sung, H. J. The impact of abuse experience from caregiver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Korea Journal of child welfare studies* 46, 85-114. 2014.
- [26] Peterson, A. C. Perceptions of the peer group and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155-181. 1984.
- [27] Se, Y. S. & Kim, J. S. After school Trends in child guidance. *Korea Journal of Childhood Education Research*,1(1), 2-37. 2004.
- [28] Spielberger, C. 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72.
- [29] Lee, E. A. & Lee, S. Y.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emotion regulation ability for the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y: based on person-centered art therap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25-49. 2012.
- [30] Collie, Art therapy for combat-related PTS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t Therapy*,23, 157-164. 2006.

이 숙 민(Lee, Sug Min)



- 2008년 2월 : 원광대학교 예술치료학과(예술치료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초빙 교수(미술치료전문가)
- 관심분야 : 사회과학, 의학
- E-Mail : rosemins@wku.ac.kr

송 순(Song, Soon)



- 1994년 2월 : 동국대학교 박사(가정학박사)
- 1994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수(모래상자치료전문가)
- 2006년 3월 ~ 2007년 2월 : U of T, OISE. 방문교수
- 관심분야 : 아동학, 아동상담
- E-Mail : ss6653@wku.ac.kr